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성을 위하여 남북 교류협력은 보건의료로부터 시작 해야 한다

전 우택^{1,2}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¹의학교육학교실, ²인문사회의학교실

For the formation of a health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Korean cooperation should begin in the field of healthcare

Woo-Taek Jeon, MD^{1,2}

Departments of ¹Medical Education and ²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Yonse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On April 27, 2018, a historic inter-Korean summit took place. Accordingly, the hostile confrontation that lasted for the past 70 years is over, and many exchanges of human resources and material between the two Koreas are expected. In this situation, I propose that the reasons for and methods of cooperation in healthcar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among the first issues to be considered.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as exchanges increase, the South and the North will rapidly develop into a single health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ealthcare can play a leading role in fostering a positive attitude among South and North Koreans toward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future unification. Third, the two Koreas have conditions that make them ideal partners for improving healthcare quality and systems in each country. Some suggestions for specific ways to do this are presented. First, an inter-Korean healthcare agreement should be concluded. Second, specific organiza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hird, it is necessary to form and operate a 'control tower' for this process in South Korea. It is expected that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field of healthcare will eventually extend to cooperation in all areas.

Key Word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ealthcare cooperation; Health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Received: May 3, 2018 Accepted: May 17, 2018

Corresponding author: Woo-Taek Jeon
E-mail: wtjeon@yuhs.ac

©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그에 따른 판문점 선언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45년 이후 남북한의 적대적인 단절 관계가 청산되고, 평화협력 및 교류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 판문점 선언 1

조 4항은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어[1], 향후 남북한 사이에는 지난 70년의 기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계속하여 증가하여 나갈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있어, 남북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영역은 보건의료 영역이다. 본 글에서는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한다.

왜 남북한의 보건의료 협력이 필요한가?

1. 교류가 증가하면 남과 북은 급격히 하나의 한반도 건강공동체로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남한의 질병이 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한은 북한에 비하여 외국과의 접촉이 훨씬 더 많은 국가이다. 따라서 자국민이 외국에 나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나 중등호흡기증후군과 같은 질병에 걸려 입국하게 될 가능성이 북한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그러한 질병이 남북한의 인적 교류 등으로 인하여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비하여 2, 3차 항생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남한에서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들이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둘째, 북한의 질병이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다. 북한은 결핵, 간염, 말라리아, 기생충 등의 감염성 질환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교류로 인하여 이러한 질병이 남한에 들어올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셋째, 외국에서 들어오는 질환이 한반도 전역에 동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인수공동 질환, 동물이나 곤충 등에 의하여 옮겨지는 질환, 환경문제나 수질오염 등과 연관되는 질환 등은 가장 가까운 인접국가로서 남과 북이 공동의 문제를 지니게 된다. 엄청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이제 하나의 질병집단 단위로 변해가고 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발생한 질병이 1주 뒤면 한반도에

서 발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인적, 물적 교류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은 서로가 서로에게 취약 지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동 대응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소위 보건안보의 공동 과제를 가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2,3]. 넷째, 인적 교류 시 상대방 지역에서의 사고나 발병에 의하여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이들을 어떤 상호 정책에 따라 치료하고, 그 비용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2. 남과 북 주민들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 및 향후

통일의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만드는 강력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상호 교류하면서 인적, 물적 교류를 증가시키면 좋은 점도 많겠지만, 사고방식, 가치관, 일을 처리하는 방식 등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갈등을 가질 수도 있다[4].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런 새로운 갈등으로 인한 피해와 불쾌감보다, 상호 교류로 인한 이익과 장점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어떤 결정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의료 협력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옛날 같았으면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질병으로부터 남북한의 보건의료 협력으로 인하여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식들이 살아났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이라는 개념을 가장 분명하게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남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을 만들어 가는 가장 강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남북교류 협력 증가는 남한 주민들에게도 교류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3.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과 시스템을 개선해

나감에 있어, 서로가 서로의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서로 가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자신들의 보건의료 체계를 스스로 구축하고, 자국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시켜 나갈 책

임과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감에 있어 세계의 어떤 국가, 어떤 국제기구와도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때 어떤 특정 국가나 기구와 좀 더 긴밀한 특수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은 북한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이다. 그 점에 있어 남한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은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으로서 최악의 보건의료 상태를 가지고 있었으나,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주요 경제국가로 발전하였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수준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중에 이런 변화를 성공한 나라는 세계에 또 없다. 남한 보건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북한이 이런 남한의 보건의료계를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을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 더구나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과 시스템 구축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에 남한은 북한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될 강력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남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건강공동체로서의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감히 손대지 못하고 있던 남한의 보건의료의 수많은 난제들을 한반도적 차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보건의료 협력은 남한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어떻게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할 것인가?

1. 남북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남북의 보건의료 교류협력은 남한이 북한의 어떤 지역에 병원을 지어주거나, 약을 제공해 주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북한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보건의료 우선순위’를 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그러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5]. 따라서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남북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동서독은 1990년에 최종적인 통일을 이루었지만, 그보다 16년 전인 1974년, 동서독 보건협정을 맺은 바 있었다[6]. 이를 통하여 감염병 및 의료정보, 약물 등의 공동 관리, 자국민의 타국 지역에서의 의료서비스 지원 받는 것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이것은 그후 동서독이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실제적이면서도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협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남한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구체적 기구의 설치, 운영이 있어야 한다

판문점 선언 1조 3항은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1].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안에 보건의료협력기구가 설치되어, 남북한 사이의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성을 위한 실제적인 업무들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남북보건의료협정을 만들기 전이라도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협정이 만들어 지면, 그 협정 내용을 실행하는 기구로서 활동하면서, 나아가 평양과 서울에 양 측 대표들이 상주하는 기관 설치로까지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3.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위한 남한 내의 기구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영역은 국가의 전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히 보건의료인들만의 전문성만을 가지고는 결정하고 수행할 수 없는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위하여는 다층적이고 다면적 구조가 필요하고, 그것이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즉 국가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부터, 기획재정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각 관련부처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수준, 보건복지부와 의료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정책적 수준, 각 전문영역별,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의견들의 수렴적 수준, 현장에서 북한 의료인들과 함께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실행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수준들의 상호 의견 교환과 유기적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북한 보건의료 개발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외국 정부들이나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기구들, 그리고 남한의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협회 등의 대표기구들, 보건의료 관련 대학들, 병원들, 각 전문학회, 전문가단체, 민간 비정부기구들이 어떤 대원칙 하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가 가진 능력, 자원, 열정을 조합시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최고의 전문성과 지속성, 그리고 조율능력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괄하는 중앙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결론

한반도의 근현대사는 너무도 큰 민족적 트라우마들로 점철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 한반도의 분단이 있었다. 인간의 고통에 맞서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을 치유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인들은, 이 큰 트라우마를 치유해 나가야 하는 공동의 큰 과제를 가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마침내 만들어진 한반도의 치유 기회 앞에서, 남북 보건의료인들은 모든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보건의료 협력활동들이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남북한 협력활동을 견인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찾아보기말: 북한, 한반도 통일, 보건의료협력, 한반도 건강공동체

ORCID

Woo-Taek Jeon, <https://orcid.org/0000-0002-9213-6057>

REFERENCES

1. Cheong Wa Dae.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ternet]. Seoul: 2018 Inter-Korean Summit; 2018 [cited 2018 May 7]. Available from: http://www.koreasummit.kr/sub01/news_view.html?no=418&page=1&searchType=&searchKey=.
2. Miller R, Dowell SF. Investing in a safer United States: what global health security and why does it matter? [Internet].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2 [cited 2018 May 7]. Available from: https://csis-prod.s3.amazonaws.com/s3fs-public/legacy_files/files/publication/120816_Miller_InvestingSaferUS_Web.pdf.
3. White House. Fact sheet: the US commitment to the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Internet]. Washington, DC: White House President Barack Obama; 2015 [cited 2018 May 7]. Available from: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5/11/16/fact-sheet-us-commitment-global-health-security-agenda>.
4. Kwon HI, Chung BH. North Korea: beyond charismatic politics. Seoul: Changbi Publisher; 2013.
5. Ministry of Public Health. Medium term strateg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sector DPR Korea 2016-2020 [Internet]. Geneva: Country Planning Cycle Databas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cited 2018 May 7]. Available from: http://www.nationalplanningcycles.org/sites/default/files/planning_cycle_repository/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dpr_korea_medium_term_strategic_plan_2016-20.pdf.
6. Yoon SJ. The experiences of system integration countries informing the potenti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s healthcare system. J Korean Med Assoc 2013;56:389-393.